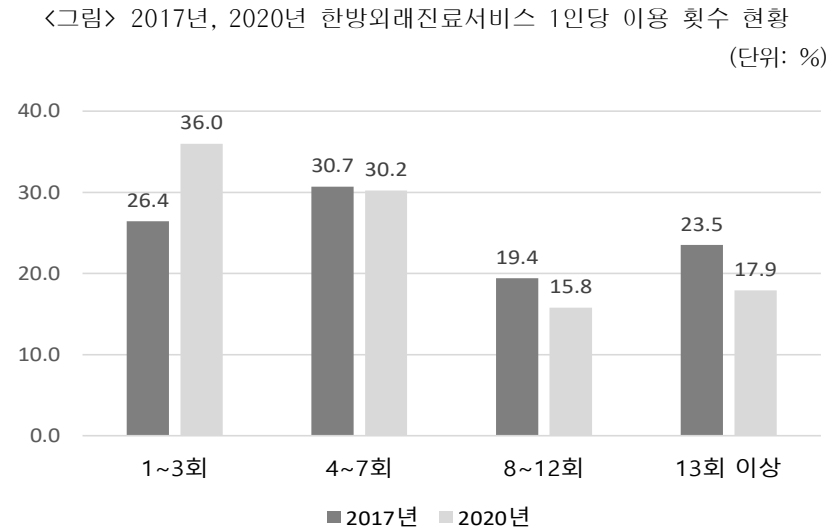


1. 다음 <그림> 및 <표>는 ‘갑’국의 한방의료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은?



<표> 2020년 응답자 특성별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대중매체	인터넷	의료기관 종사자	지인	기타	계
전체		11.3	10.4	18.7	58.6	1.0	100.0
이용 기관	한방병원	17.7	22.6	12.7	43.1	3.8	100.0
	한의원	11.0	9.7	19.0	59.4	0.9	100.0
연령	18~29세	9.5	17.8	10.1	62.5	0.1	100.0
	30대	8.4	20.7	18.8	52.0	0.1	100.0
	40대	10.5	16.3	14.5	57.5	1.2	100.0
	50대	14.1	7.3	19.0	58.5	1.1	100.0
	60대 이상	12.9	2.8	23.0	60.8	0.5	100.0

※ 단, 한방의료 외래 이용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중 하나만을 이용함

—<보 고 서>—

‘갑’국 보건의료연구원은 18세 이상의 한방의료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방외래진료서비스 1인당 이용 횟수를 설문조사하였다. ㉠2020년 한방외래진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1~3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1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2배 미만이다. 2020년 한방외래진료서비스 평균 이용 횟수는 10.3회로 2017년의 11.6회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한방외래진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4~7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0.5%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2020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자 특성별(이용기관·연령)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를 함께 설문조사하였다. ㉢연령 중 20대는 9.5%가 대중매체를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14.1%가 대중매체를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하여 연령 구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 받은 이용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설문대상 중 이용기관이 한의원인 응답자의 수는 한방병원인 응답자 수보다 16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40대, 50대의 정보·지식 획득 경로 비율이 높은 순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지인’, ‘인터넷’, ‘의료기관 종사자’, ‘대중매체’ 순으로 동일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 다음 <표>는 2020년 산업별 업무상 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20년 산업별 업무상 질병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합계
광업	()	73	2,612
제조업	5,141	()	5,713
건설업	()	29	2,182
운수·통신업	674	()	747
서비스업	()	2,534	4,742

—<조 건>—

○ 여성 질병자 수보다 남성 질병자 수가 10배 이상인 산업은 B와 D이다.

○ A의 여성 질병자 수는 B의 여성 질병자 수와 동일하다.

○ C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남성 질병자 수가 여성 질병자 수보다 많다.

- | | A | B | C | D | E |
|---|--------|--------|------|--------|------|
| ① | 운수·통신업 | 광업 | 서비스업 | 건설업 | 제조업 |
| ② | 운수·통신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 ③ | 운수·통신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광업 | 제조업 |
| ④ | 광업 | 건설업 | 제조업 | 운수·통신업 | 서비스업 |
| ⑤ | 광업 | 운수·통신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3. 다음 <표>는 36개월간 A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유형별 민원건수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유형별 민원건수(2019. 8.~2022. 7.)
(단위: 건)

구분	고충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즉결기타	합계
해결	590	75,934	244	10,907	87,675
보류	130	47	0	0	177
처리중	10	378	13	6	407
취하	18	486	18	32	554
이송 및 이첩	321	35	0	0	356
반려	2	98	1	5	106
법적불가	4	50	0	0	54
기타	11	98	0	10	119
합계	1,086	77,126	276	10,960	89,448

<보 기>

- ㄱ. 제시된 기간 동안 단순민원은 고충민원에 비해 80배 이상 발생하였다.
- ㄴ. 만약 2019년 8월에 2,576건의 단순민원이 발생했다면, 이는 제시된 기간 동안 제기된 단순민원 발생건수의 월별 평균보다 높다.
- ㄷ. 제시된 기간 동안 민원 유형별 해결률은 단순민원 유형이 가장 높다.
- ㄹ. 제시된 기간 동안 민원 유형별 취하율은 복합민원 유형이 가장 높다.

※ 해결률(%) = $\frac{\text{해결건수}}{\text{민원건수}} \times 100$

※ 취하율(%) = $\frac{\text{취하건수}}{\text{민원건수}} \times 100$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다음 <표>는 조선 4대 왕궁 및 종묘 보존관리 사업 현황에 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조선 4대 왕궁 및 종묘 보존관리 사업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합계
복원	건수	4	0	()	0	2	7
	사업비	()	0	365,967	0	48	918,270
보수 정비	건수	()	51	18	8	14	156
	사업비	101,463	124,752	179,651	64	()	734,580
전통 조경	건수	2	14	()	0	8	29
	사업비	9,471	()	50,387	0	13	82,741
합계	건수	71	65	24	8	24	192
	사업비	663,189	147,622	596,005	64	328,711	1,735,591

<보 기>

- ㄱ. 보수정비 사업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존관리 사업의 사업비 규모도 가장 크다.
- ㄴ. 복원 사업을 실시한 곳 중 복원 사업 1건당 사업비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곳은 전통조경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다.
- ㄷ. 보수정비 사업과 전통조경 사업을 모두 실시한 곳 중 보존관리 사업 1건당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덕수궁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5. 다음 <표 1> 및 <표 2>는 A~H의 근무성적, 근속연수 및 연구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H 중 최종 점수 1위, 2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2022년 A~H의 근무성적, 근속연수 및 연구건수

구분		근무성적			
근속연수	연구건수	35점	40점	45점	50점
6년	0건				
	1건				H
	2건			E	
7년	0건		B		G
	1건		C	A	
	2건	D	F		

<표 2> 2020~2021년 A~H의 근무성적

구분	A	B	C	D	E	F	G	H
2020년	35점	50점	45점	40점	45점	30점	50점	50점
2021년	35점	50점	40점	30점	50점	35점	45점	40점

<정 보>

- 최종 점수 = (2020년 근무성적 + 2021년 근무성적) ÷ 2 + 2022년 근무성적 + (2022년 연구건수 × 12) + 근속연수 환산점수
- 근속연수 환산점수는 2022년의 근속연수가 6년이면 27점, 7년이면 48점임.

	1위	2위
①	C	A
②	E	C
③	F	A
④	G	C
⑤	G	F

6. 다음 <표>는 갑 대학교 K과목 수강생 A~E의 항목별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점수 산출 방식>을 근거로 A~E 중 최종 성적이 가장 높은 수강생은?

<표> 갑 대학교 K과목 수강생 A~E의 항목별 점수

(단위: 점, 일)

구분	시험1	시험2	시험3	1차 과제	2차 과제	결석일수
A	80	70	75	82	80	4
B	90	80	85	95	90	7
C	85	80	75	80	85	3
D	90	55	85	95	90	1
E	90	60	80	95	85	5

<점수 산출 방식>

- 결석일수를 제외한 각 항목별 만점은 100점이다.
- 시험 점수 및 출석 점수 산출 방법
 -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시험 점수 = (시험1~3의 점수 중 가장 높은 2개 점수의 단순 평균)
 - 출석 점수 = 5점
 - 결석일수가 3일 초과 6일 이하인 경우
 - 시험 점수 = (시험1~3의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 0.5) + (시험1~3의 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 × 0.3) + (시험1~3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 × 0.2)
 - 출석 점수 = 2점
 - 결석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시험 점수 = (시험1~3의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 0.4) + (시험1~3의 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 × 0.3) + (시험1~3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 × 0.3)
 - 출석 점수 = 0점
- 과제 점수 산출 방법
 - = (1차 과제 점수 + 2차 과제 점수) ÷ 2
- 최종 성적 산출 방법
 - = (시험 점수 × 0.8) + (과제 점수 × 0.2) + 출석 점수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7. 다음 <표>는 2021년 하반기 ‘갑’국 A~D 시장의 월별 유통량과 유통금액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시장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21년 하반기 ‘갑’국 A~D 시장의 월별 유통량 및 유통금액
(단위: 천톤, 백만달러)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유통량	276 (4.9%)	288 (4.7%)	212 (-7.8%)	194 (-8.1%)	163 (-9.4%)	189 (-8.7%)
	유통금액	464	441	366	367	308	371
B	유통량	170 (-5.6%)	195 (10.8%)	174 (4.8%)	142 (-10.7%)	139 (-4.1%)	166 (-12.6%)
	유통금액	371	361	351	341	267	295
C	유통량	285 (3.6%)	246 (0.0%)	243 (-4.7%)	253 (0.0%)	187 (-5.1%)	180 (-12.2%)
	유통금액	343	273	265	275	203	210
D	유통량	195 (17.5%)	272 (13.8%)	205 (10.8%)	138 (-16.4%)	186 (9.4%)	230 (12.7%)
	유통금액	172	255	185	131	175	220

※ () 안의 수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정 보>

○ 2021년 9월 유통량 1톤당 유통금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시장은 강남시장과 강서시장이다.

○ 2020년 12월 유통량이 20만톤 이상인 시장은 강북시장, 강남시장, 강동시장이다.

○ 2020년 8월 유통량이 세 번째로 많은 시장은 강북시장이다.

- | | A | B | C | D |
|---|----|----|----|----|
| ① | 강남 | 강서 | 강북 | 강동 |
| ② | 강남 | 강서 | 강동 | 강북 |
| ③ | 강북 | 강서 | 강남 | 강동 |
| ④ | 강북 | 강남 | 강서 | 강동 |
| ⑤ | 강서 | 강남 | 강동 | 강북 |

8. 다음 <표 1> 및 <표 2>는 갑, 을 지역 가구의 월 소득별·가구 규모 별 가구 수 및 2~4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 을 지역 가구의 월 소득별·가구 규모별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2인 이하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5인 이하 가구	소계
갑	200만원 미만	456	125	140	72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31	182	232	94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49	259	310	1,018
	400만원 이상	297	315	390	1,002
	소계	1,733	881	1,072	3,686
을	200만원 미만	490	144	113	74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1	168	217	83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15	150	302	767
	400만원 이상	101	126	188	415
	소계	1,357	588	820	2,765

※ n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n명인 가구를 의미함
※ 6인 이상 가구는 존재하지 않음

<표 2> 갑, 을 지역 2~4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
(단위: 명)

구분	2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	3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	4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	소계
갑	1,940	2,643	2,864	7,447
을	1,708	1,764	1,844	5,316

※ 동일한 인원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가구 구성원으로 집계된 경우는 없음

<보 기>

ㄱ. 5인 가구 수는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많다.

ㄴ. 1인 가구 소속 가족 구성원 수는 갑 지역이 을 지역의 150% 이상이다.

ㄷ. 월 소득 400만원 미만인 전체 가구 중 4인 이상 5인 이하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크다.

ㄹ. 월 소득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 총합은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9. 다음 <표>는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A~F국의 커피·콜라지 수 및 C국 기준 국가별 상대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F국의 커피·콜라지수 및 C국 기준 국가별 상대가격

구분	커피 · 콜라지수	C국 기준 국가별 상대가격	
		콜라	커피
A	140	75	㉠
B	144	㉡	120
C	150	100	100
D	100	120	80
E	130	150	130
F	120	75	60

※ 커피:콜라지수 = (해당 국가의 커피 가격 ÷ 해당 국가의 콜라 가격) × 100
 ※ C국 기준 국가별 커피(콜라)상대가격 = (해당 국가의 커피(콜라) 가격 ÷ C국의 커피(콜라) 가격) × 100

<보 기>

- ㄱ. A~F국 중 커피 가격이 C국의 콜라 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1개이다.
- ㄴ. ㉠은 100보다 크고, ㉡은 100보다 작다.
- ㄷ. C국의 콜라 가격이 2,500원일 때, A, B, C, D, F국 중 커피 가격이 E국의 콜라 가격보다 높은 국가는 D국뿐이다.

- ① $\neg$
② $\perp$
③ $\neg, \perp$
④ $\neg, \bot$
⑤ $\neg, \perp, \bot$

10. 다음 <표>는 A~C 기업의 연도별, 기업별 기초·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기업별 기초·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매출액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9년				2022년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매출액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매출액
A	4,200	5,300	3,600	3,300	6,100	4,800	7,600	8,500
B	5,800	4,100	3,000	3,600	4,200	5,300	5,300	6,000
C	6,400	9,600	6,400	6,000	5,700	6,000	5,500	6,100

- ※ 평균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 2
-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매입자산 - 기말재고자산
-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보 기>

- ㄱ. 2019년 대비 2022년 평균재고자산이 증가한 기업은 2개이다.
 ㄴ. 2019년 재고자산회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C이다.
 ㄷ. 2022년 A는 B보다 매입자산과 매출총이익이 모두 많다.
 ㄹ. 2022년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총이익도 많다.

- ① $\neg$, 忸
② $\neg$, 忸
③ $\perp$, 忸
④ $\perp$, 忸
⑤ $\vdash$, 忸

11. 다음 <표>는 연료 연소에 따른 세계 및 2018년 기준 상위 10개국 (A~J)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료 연소에 따른 세계 및 2018년 기준 상위 10개국(A~J)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tCO₂eq.)

국가	2018년				2019년			
	전체	석탄	석유	가스	전체	석탄	석유	가스
세계	34,248.8	15,082.6	11,540.0	7,098.1	34,233.9	14,891.5	11,541.9	7,267.2
A	9,866.4	7,862.0	1,409.0	533.3	10,028.3	7,938.8	1,451.6	580.7
B	4,987.5	1,269.4	2,078.6	1,603.2	4,821.3	1,077.8	2,043.1	1,662.7
C	2,372.0	1,648.2	597.3	81.7	2,371.9	1,638.8	605.2	83.1
D	1,612.7	428.9	308.3	839.4	1,652.1	433.1	318.6	855.4
E	1,099.8	431.7	400.3	229.4	1,065.8	426.1	384.4	219.9
F	704.4	274.4	235.5	171.5	653.9	219.3	241.3	170.1
G	611.1	316.9	161.3	114.3	590.7	300.9	162.0	110.3
H	591.4	5.1	194.8	391.3	588.6	5.3	191.4	391.7
I	579.2	58.3	283.2	234.2	579.6	53.9	286.6	235.6
J	551.4	224.6	235.8	82.5	596.3	277.5	223.0	88.7

<보 기>

- ㄱ. 2018년에는 적어도 31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ㄴ. 2019년 세계의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석탄, 석유,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9.5% 이상이다.
- ㄷ. A~J국 중 2019년 석탄, 석유, 가스 모든 부문에서 각각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국가에서는, 2019년 석탄 부문과 석유 부문에서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① $\neg$
- ② $\perp$
- ③ $\sqsubset$
- ④ $\neg, \sqsubset$
- ⑤ $\perp, \sqsubset$

12. 다음 <표>는 2017~2021년 국가별 생산자물가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7~2021년 국가별 생산자물가지수

국가	생산자물가지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알바니아	101.9	103.6	102.7	99.2	101.9
독일	105.3	107.3	108.3	107.5	115.5
헝가리	109.5	115.6	118.0	123.0	139.6
아일랜드	104.7	102.9	101.4	92.2	91.4
몰타	96.3	100.5	102.7	103.0	106.3
네덜란드	105.2	108.3	109.3	104.8	117.9
노르웨이	109.5	125.8	121.3	108.9	150.1
폴란드	108.5	110.8	112.4	111.8	120.8
러시아	175.6	197.2	201.1	193.6	241.0
스페인	108.2	110.8	110.5	106.5	122.3
스웨덴	102.1	108.9	112.1	108.3	119.9
우크라이나	299.8	352.5	367.1	360.2	507.3
영국	106.6	109.9	112.7	112.4	118.1
세르비아	130.2	131.6	132.4	130.8	142.1

※ 각 국가별 2010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함
 ※ 제시되지 않은 국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2021년 스페인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세르비아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1.5배 이상이다.
- ② 제시된 국가 중 2017년 생산자물가지수가 가장 작은 국가의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는 2017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 ③ 2019년 제시된 모든 국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보다 크다.
- ④ 제시된 국가 중 2018년 대비 2020년 생산자물가지수가 증가한 국가 수는 7개 미만이다.
- ⑤ 제시된 국가 중 2017년 대비 2018년 생산자물가지수의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는, 2017년 대비 2018년 생산자물가지수의 증가율도 두 번째로 크다.

13. 다음 <표 1> 및 <표 2>는 갑 대학교의 모든 전공신청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 대학교의 계열별·전공별 선발인원 및 신청인원

(단위: 명)

구분	전공	선발인원	신청인원		
			단일전공	이중전공	소계
상경계열	경영학	40	34	360	394
	경제학	80	154	526	680
사회계열	정치학	60	32	286	318
	언론학	40	18	141	159
인문계열	문학	40	31	229	260
	사학	20	7	158	165

※ 경쟁률 = 신청인원 ÷ 선발인원
 ※ 이중전공 신청인원은 해당 전공과 해당 전공 외 다른 하나의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을 의미함
 ※ 제시되지 않은 전공은 고려하지 않으며, 3개 이상의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은 없음

<표 2> 갑 대학교의 동일계열 내 이중전공 신청인원

(단위: 명)

구분	상경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신청인원	315	85	70

※ 동일계열 내 이중전공 신청인원은 동일계열에 속한 두 개의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을 의미함

<보 기>

ㄱ. 상경계열의 경쟁률은 9 이상이다.

ㄴ. 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공과 두 번째로 낮은 전공은 같은 계열에 속한다.

ㄷ. 인문계열 전공과 사회계열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은 124명이다.

ㄹ. 상경계열 전공과 사회계열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은 상경계열 전공과 인문계열 전공을 함께 신청한 인원보다 9명 더 많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4.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18~2020년 관광산업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8~2020년 관광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여행업	19,039	18,223	16,660
관광숙박업	2,110	2,218	2,223
관광객이용시설업	4,323	4,657	6,079
국제회의업	886	1,040	1,110
카지노업	17	17	17
유원시설업	3,000	2,981	2,689
관광편의시설업	4,077	4,189	3,237
전체	33,452	33,325	32,015

<표 2> 2018~2020년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여행업	99,077	103,311	61,784
관광숙박업	69,926	70,658	49,930
관광객이용시설업	23,154	23,863	19,752
국제회의업	9,100	10,235	8,383
카지노업	7,330	7,925	7,105
유원시설업	26,189	24,811	18,124
관광편의시설업	32,785	35,644	26,446
전체	267,561	276,447	191,524

<표 3> 2018~2020년 관광산업 업종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여행업	8,462,198	8,627,141	435,360
관광숙박업	7,664,356	8,362,772	3,961,325
관광객이용시설업	1,020,730	1,083,678	651,487
국제회의업	1,303,342	1,527,347	383,708
카지노업	3,025,354	2,930,423	1,041,344
유원시설업	1,970,884	2,133,718	556,920
관광편의시설업	1,982,210	2,148,718	1,172,271
전체	25,429,074	26,813,797	8,202,415

- ① 2020년 모든 관광산업 업종에서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다.
- ② 2020년 전체 관광산업의 사업체수당 종사자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 이상이다.
- ③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율이 두 번째로 작은 관광산업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이다.
- ④ 2018~2020년 동안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수에서 여행업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⑤ 2020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두 번째로 많은 관광산업 업종이 2020년 종사자수도 두 번째로 많다.

15. 다음 <표>는 2020~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인원 및 1인당 연 이용시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인원 및 1인당 연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서비스 이용인원	1인당 연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인원	1인당 연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인원	1인당 연 이용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5,766	354.4	9,432	381.6	14,640	392.0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3,375	134.8	6,798	128.8	12,000	138.0

※ 서비스는 1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함
 ※ 2020~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이용시간당 단가는 14,000원이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의 이용시간당 단가는 16,000원임

<정 보>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14,700명 × 14,000원(단가/시간) × 392시간 = ()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12,000명 × 16,000원(단가/시간) × 140시간 = ()원

<보 기>

- ㄱ. 2023년도 예산안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편성액 대비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편성액은 30% 이상이다.
- ㄴ. 2022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총 이용액은 250억원 이하이다.
- ㄷ. 2020년 대비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총 이용액의 증가율은 각각 300% 이상이다.
- ㄹ. 2021년 대비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1인당 연 이용시간 증가율은 2021년 대비 2022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1인당 연 이용시간 증가율보다 높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ㄹ

16. 다음 <표 1> 및 <표 2>는 ‘갑’국 금속자원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 수입량 및 2022년 상반기 월별 방출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구리, 아연, 주석 외의 금속자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1> ‘갑’국 금속자원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 및 수입량
(단위: 일, 천톤)

구분	목표재고일수		수입량	
	안전	적정	2019년	2020년
구리	50	70	300	400
아연	30	60	500	300
주석	70	90	700	100

- ※ 품목별 적정 목표재고일수 = 품목별 안전 목표재고일수 + 품목별 운영 목표재고일수
- ※ 품목별 당해 연도 목표재고량 = (품목별 당해 연도 평균 수입수요량 ÷ 365) × 품목별 적정 목표재고일수
- ※ 품목별 당해 연도 안전(운영) 목표재고량 = (품목별 안전(운영) 목표재고일수 ÷ 품목별 적정 목표재고일수) × (품목별 당해 연도 목표재고량)
- ※ 품목별 당해 연도 평균 수입수요량 = (1년 전 수입량 × 0.6) + (2년 전 수입량 × 0.3) + (3년 전 수입량 × 0.1)

<표 2> ‘갑’국 금속자원의 품목별 2022년 상반기 월별 방출 상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구리	평상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아연	평상시	평상시	긴급시	평상시	평상시	긴급시
주석	평상시	평상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수급불안시	긴급시

- ※ 긴급시: ‘(해당 품목의 실제 재고량) < (해당 품목의 안전 목표재고량)’인 경우
- ※ 평상시: ‘(해당 품목의 실제 재고량) > (해당 품목의 목표재고량)’인 경우
- ※ 월별 방출 상황은 긴급시, 수급불안시, 평상시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며, 이 셋 이외의 방출 상황은 없음
- ※ 매월 안전(운영) 목표재고량은 당해 연도 안전(운영) 목표재고량과 동일함

<보 기>

- ㄱ. ‘갑’국의 모든 금속자원의 2018년 수입량이 0톤이라면, 2021년 금속자원의 품목별 운영 목표재고량은 아연, 구리, 주석 순으로 많다.
- ㄴ. ‘갑’국의 모든 금속자원의 2021년 수입량이 0톤이라면, 2022년 ‘갑’국의 1월 구리 실제 재고량은 동월 아연 실제 재고량보다 많고 2월 주석 실제 재고량은 동월 구리 실제 재고량보다 적다.
- ㄷ. 2022년 ‘갑’국의 주석 실제 재고량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양만큼 감소한다면, 2022년 4월 ‘갑’국의 주석 실제 재고량은 동년 7월 실제 재고량보다 25% 이상 많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7. 다음 <표>는 2018~2020년 한약재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8~2020년 한약재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단위: 천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우황	31,471	녹용	32,244	사향	33,820
2	녹용	30,078	우황	25,384	녹용	31,184
3	사향	13,186	사향	16,777	우황	20,859
4	반하	3,506	반하	3,376	마황	3,759
5	숙지황	3,387	숙지황	2,903	반하	3,448
6	황련	2,410	마황	2,783	감초	2,262
7	백출	2,361	복령	2,766	복령	2,163
8	감초	2,246	현호색	2,691	팔루근	2,024
9	사인	2,217	감초	2,401	숙지황	1,886
10	마황	2,128	사인	2,269	황련	1,435
	수입총액	146,960	수입총액	145,385	수입총액	150,405

<보 기>

- ㄱ. 2018년 한약재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2020년 한약재 수입액 순위가 하향된 품목은 6종이다.
- ㄴ. 2018년 한약재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2019~2020년 동안 전년 대비 매년 수입액이 증가한 한약재는 3종뿐이다.
- ㄷ. 2019년 마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마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높다.
- ㄹ. 2018~2020년 동안 우황, 녹용, 사향 3개 품목 수입액의 합은 매년 한약재 수입총액의 40%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갑’국의 1차 에너지 및 최종에너지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갑’국의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급 및 수입의존도 현황
(단위: 천TOE, %)

구분	1차 에너지 연간 수급량	에너지원별 수급 구성비							수입 의존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계	
2016년	293,778	27.7	40.0	15.5	0.5	11.6	4.6	100.0	94.6
2017년	302,490	28.5	39.6	15.7	0.5	10.5	5.2	100.0	94.0
2018년	307,557	28.2	38.5	18.0	0.5	9.2	5.6	100.0	93.7
2019년	303,092	27.1	38.7	17.7	0.4	10.3	5.8	100.0	93.5
2020년	292,076	24.7	37.7	18.8	0.5	11.7	6.5	100.0	92.8

※ 수입의존도는 연도별 1차 에너지 수급량 중 수입생산된 1차 에너지 수급량의 비중을 의미함
※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2> ‘갑’국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천TOE, %)

구분	최종에너지 연간 소비량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							
		석탄	석유	LNG	도시 가스	전력	열 에너지	신재생 및 기타	계
2016년	221,936	10.6	63.5	0.5	6.0	15.3	1.0	3.2	100.0
2017년	231,023	10.4	63.2	0.6	6.1	14.9	1.1	3.7	100.0
2018년	233,368	9.9	62.1	0.9	6.7	15.4	1.1	3.9	100.0
2019년	231,353	9.9	62.2	1.3	6.3	15.3	1.1	3.9	100.0
2020년	222,563	9.7	61.1	1.6	6.4	15.7	1.2	4.3	100.0

※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3> ‘갑’국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천TOE)

구분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2016년	175,498	18,721	21,921	5,796
2017년	181,102	19,860	24,183	5,878
2018년	183,498	21,334	22,921	5,615
2019년	182,903	20,056	22,996	5,398
2020년	177,964	19,912	19,436	5,251

<보 고 서>

‘갑’국의 2016~2020년 1차 에너지 연간 수급량은 3억TOE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에너지원별 수급량의 경우 표에 제시된 5년간 석유의 1차 에너지 수급량이 가장 많았으며, 석탄-LNG-원자력이 뒤를 이었다. 5년간 수입의존도는 매년 90%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갑’국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매우 취약함과 더불어 향후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갑’국의 2016~2020년 최종에너지 연간 소비량은 2.2~2.3억TOE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경우 1차 에너지 수급량과 마찬가지로 5년간 석유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았으며, 전력-석탄-도시가스가 뒤를 이었다.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 순이었다가 2020년에 가정·상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수송 부문을 앞질렀는데, 2011~2015년까지는 수송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가정·상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보다 꾸준히 많았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6~2020년에는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석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갑’국 정부가 석유의 안정적 수급처를 확보함으로써 ‘갑’국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 기>

- ㄱ. ‘갑’국의 에너지원별 2016~2020년 1차 에너지 수급량 순위
- ㄴ. ‘갑’국의 부문별 2011~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순위
- ㄷ. ‘갑’국의 에너지원별 2016~2020년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 순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 다음 <표 1> 및 <표 2>는 2017~2019년 국제 무기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19.~문 20.]

<표 1> 2017~2019년 무기 종류별 국제 거래 규모액
(단위: 백만달러)

무기 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항공기	13,894	11,771	15,048	40,713
방공 시스템	1,651	1,342	900	3,893
전차	3,118	3,402	2,255	8,775
화포	238	370	361	969
엔진	1,461	1,319	1,470	4,250
유도무기	4,488	4,088	3,092	11,668
함정무기	177	233	159	569
위성	100	50	50	200
감지	1,157	1,063	1,076	3,296
함정	5,128	3,405	2,340	10,873
기타	132	123	443	698
전체	31,544	27,166	27,194	85,904

<표 2> 2017~2019년 주요 국가 10개국 무기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가	2,931	1,488	2,964
나	3,934	3,760	3,673
다	1,371	1,633	887
라	1,671	1,575	1,399
마	965	1,197	644
바	2,406	1,674	1,193
사	851	792	561
아	1,056	1,106	1,510
자	962	1,253	140
차	425	591	833

19. <표 1> 및 <표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7~2019년 국제 거래 규모액 기준 상위 3개 무기 종류의 국제 거래 규모액의 합계는 매년 전체 국제 거래 규모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 ② 2018년 주요 국가 10개국 중 무기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8년 주요 국가 10개국 중 무기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액도 가장 많다.
- ③ 2019년 ‘전차’의 전년 대비 국제 거래 규모액 감소율은 2019년 ‘함정’의 전년 대비 국제 거래 규모액 감소율보다 크다.
- ④ 주요 국가 10개국 중 무기수입액의 2017년 대비 2019년 변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차’국이다.
- ⑤ 주요 국가 10개국 중 무기수입액의 2017~2019년 합계 상위 3개 국가 2017년 상위 3개국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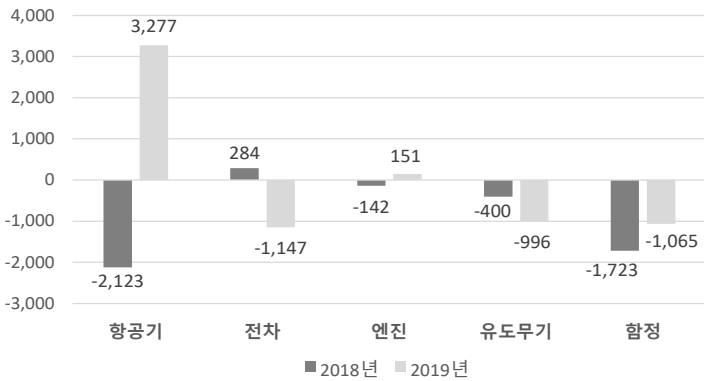
20. <표 1> 및 <표 2>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 종류별 2017년 국제 거래 규모액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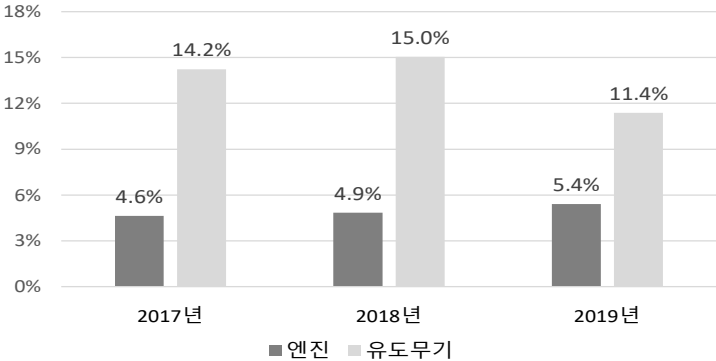
항목	항공기	방공 시스템	전차	화포	엔진	유도무기
비중	44.0	5.2	9.9	0.8	4.6	14.2
항목	함정무기	위성	감지	함정	기타	합계
비중	0.6	0.3	3.7	16.3	0.4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② 무기 종류별(일부) 국제 거래 규모액의 전년 대비 증감액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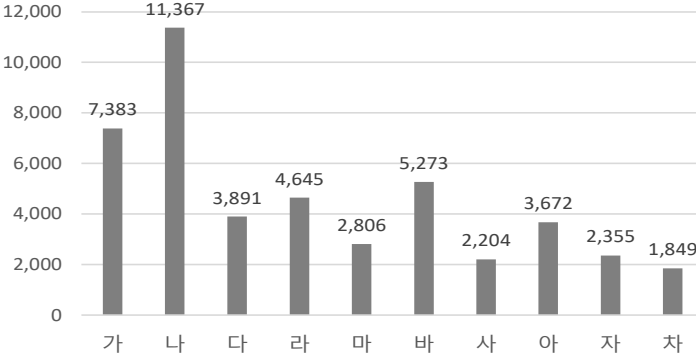


③ 엔진, 유도무기의 2017~2019년 국제 거래 규모액 구성비



※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④ 주요 국가 10개국의 2017~2019년 무기수입액 합계
(단위: 백만달러)



⑤ 주요 국가 10개국의 2019년 무기수입액 구성비
(단위: %)

국가	가	나	다	라	마	바
비중	17.7	23.7	8.3	10.1	5.8	14.5
국가	사	아	자	차	합계	
비중	5.1	6.4	5.8	2.6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1. 다음 <표>는 2022년 전국 시·도별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유형별 분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2022년 전국 시·도별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개)

시·도명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강원도	11	7	4	29
경기도	36	30	23	121
경상남도	9	8	2	35
경상북도	18	17	5	47
광주광역시	10	9	6	29
대구광역시	3	3	2	29
대전광역시	12	11	8	36
부산광역시	13	13	6	50
서울특별시	42	41	96	257
세종특별자치시	3	3	2	5
울산광역시	2	2	2	5
인천광역시	5	4	7	14
전라남도	11	8	0	13
전라북도	8	7	5	34
제주특별자치도	2	2	2	9
충청남도	15	14	7	39
충청북도	11	8	4	27
합계	211	187	181	779

※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만 구분됨

<보 고 서>

지난 2022년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 4년제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39.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대학원 교육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전문대학원의 경우 전체 181개 전문대학원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126개(약 69.6%)가,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전체 특수대학원의 약 33.0%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 편중 현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 제시된 교육기관 유형 가운데 가장 수도권 지역 편중이 낮았다. ㉣광역시 중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11개), 두 번째로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30개)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가운데 약 1.1%만이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중 수도권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2. 다음 <표>는 ‘갑’국 기관유형별 국가승인통계 작성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기관유형(연구기관, 협회/조합, 공사/공단, 금융기관, 기타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국 기관유형별 국가승인통계 작성 현황
(단위: 개, 중)

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정부기관	308	1,099	75	1,024	459	376	264
중앙행정기관	48	441	58	383	274	112	55
지방자치단체	260	658	17	641	185	264	209
지정기관	101	217	17	200	120	71	26
A	7	21	10	11	8	5	8
B	36	70	0	70	27	41	2
C	20	50	2	48	37	6	7
D	14	35	3	32	28	5	2
E	24	41	2	39	20	14	7

※ 정부기관 및 지정기관 외의 기관은 고려하지 않음
※ 모든 국가승인통계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중 어느 한 종류에만 속하며, ‘조사’, ‘보고’, ‘가공’ 중 하나의 방법만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정 보>

- 작성통계수 중 지정통계의 비중이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지정기관 유형은 ‘금융기관’뿐이다.
- ‘작성기관당 작성통계수’의 값이 ‘지방자치단체’의 값보다 5% 이상 크지도 않고 5% 이상 작지도 않은 지정기관 유형은 ‘연구기관’과 ‘협회/조합’이다.
- 작성통계 중 ‘가공’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의 비중은 ‘정부기관’이 ‘협회/조합’의 4배 이상이다.
- 작성통계 중 ‘가공’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의 비중은 ‘중앙행정기관’이 ‘공사/공단’의 4배 이상이다.

- A

B

C

D

E

① 기타기관 협회/조합 연구기관 공사/공단 금융기관

② 금융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협회/조합 기타기관

③ 금융기관 협회/조합 연구기관 공사/공단 기타기관

④ 금융기관 협회/조합 공사/공단 연구기관 기타기관

⑤ 금융기관 공사/공단 협회/조합 연구기관 기타기관

23. 다음 <표>는 2019~2021년 발생한 열차사고의 종류와 원인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9~2021년 발생한 열차사고의 종류와 원인
(단위: 건)

구분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종류	계	()	()	()
	열차충돌	0	1	5
	열차접촉	0	0	0
	열차탈선	6	3	12
	열차화재	0	0	0
	기타	0	0	0
사고원인	계	()	()	()
	취급부주의	2	1	12
	차량결함	2	1	2
	시설결함	0	0	3
	정비보수검사미비	0	1	0
	미승인작업	0	0	0
	기타	2	1	0

※ 제시된 모든 사고는 각각 단 하나의 사고원인에 기인해 발생함
 ※ 제시된 사고 외에 2019~2021년 발생한 열차사고는 존재하지 않음

- ① 2019~2021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열차사고의 원인은 최대 7종류이다.
- ② 열차탈선 사고의 원인 중 차량결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이 2019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 ③ 만약 2020년 발생한 모든 열차충돌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2019~2021년 동안 매년 열차탈선 사고를 발생시킨 공통된 사고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2021년 열차탈선 사고의 절반 이상은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 ⑤ 2019~202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열차사고에서 열차충돌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하이다.

24. 다음 <표 1> 및 <표 2>는 2011년과 2021년 ‘갑’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입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산업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1> ‘갑’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1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36.6	24.3	239.8	25.0	5.8
기계류	99.1	17.6	209.4	21.8	7.8
전기전자제품	141.3	25.1	180.1	18.8	2.5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46.8	8.3	67.2	7.0	3.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2.5	5.8	57.4	6.0	5.9
석유제품	26.5	4.7	48.1	5.0	6.1
화학공업제품	20.8	3.7	36.8	3.8	5.9
선박과 수상구조물	7.2	1.3	21.4	2.2	11.5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11.0	2.0	18.7	1.9	5.4
섬유, 의복, 가죽제품	13.7	2.4	17.5	1.8	2.5
농축수산물	5.5	1.0	14.2	1.5	9.9

<표 2> ‘갑’국의 산업별 대미 수입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1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8.2	1.8	40.3	5.4	17.3
기계류	71.0	15.9	102.6	13.8	3.8
전기전자제품	65.1	14.6	64.4	8.6	-0.1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37.5	8.4	27.5	3.7	-3.1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5.7	3.5	19.0	2.5	1.9
석유제품	26.4	5.9	198.5	26.7	22.4
화학공업제품	46.0	10.3	56.0	7.6	2.0
선박과 수상구조물	0.8	0.2	1.3	0.2	5.0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35.1	7.9	47.8	6.4	3.1
섬유, 의복, 가죽제품	13.7	3.1	5.2	0.7	-9.2
농축수산물	66.8	15.0	98.2	13.2	3.9

- ① 2011년 대비 2021년에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나 수출 금액이 증가한 산업은 3개이다.
- ② 2011년 대비 2021년 ‘전기전자제품’ 산업의 대미 수출 금액과 대미 수입 금액의 증감 방향은 동일하다.
- ③ 대미 수출 금액과 대미 수입 금액의 연평균 증감률이 세 번째로 높은 산업은 동일하다.
- ④ 2011년 대비 2021년에 대미 수입 금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산업은 2개이다.
- ⑤ 2011년 대비 2021년에 ‘화학공업제품’ 산업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증가하였다.

25. 다음 <표>는 위원별 직급, 거주지 및 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위원별 직급, 거주지 및 회의 참석 여부

구분	직급	거주지	회의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A	위원장	나	○	○	○	
B	상임위원	가		○	○	
C	상임위원	다	○		○	○
D	평위원	다	○	○		○
E	평위원	나		○	○	○
F	평위원	가	○		○	○
G	평위원	다	○	○	○	
H	전문위원	가	○			
I	전문위원	나		○	○	○

※ ‘○’은 해당 위원이 해당 회차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의미하며, ‘○’ 표시가 없는 것은 해당 위원이 해당 회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정 보>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1명당 식비 5만원이 지급되고,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에게는 24만원, 상임위원에게는 1명당 14만원, 평위원에게는 1명당 12만원, 전문위원에게는 1명당 15만원이 출석수당으로 지급되었음.
-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가’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1명당 4만원, ‘나’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1명당 2만원, ‘다’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1명당 1만원이 교통비로 지급되었음.
- 위의 식비, 출석수당, 교통비는 회의 회차마다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

- ① ‘나’에 거주하는 위원이 1~4회차 회의에서 지급받은 교통비의 합은 20만원이다.
- ② 1~4회차 회의 중 지급된 출석수당의 합이 가장 많은 회의 회차는 2회차이다.
- ③ 1~4회차 회의 중 참석 위원에서 평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의 회차는 2회차이다.
- ④ C와 I가 1~4회차 회의에서 받은 식비, 출석수당, 교통비의 합은 126만원이다.
- ⑤ 1~4회차 회의에서 ‘나’에 거주하는 위원에게 지급된 식비의 합은 ‘다’에 거주하는 위원에게 지급된 식비의 합보다 크다.

26. A국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및 <표 2>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2년 실천 활동 종류별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 산정 기준

구분	지원금 단가	활동 종류별 지원금 상한액
실천 다짐서 작성	5,000원/회	5,000원
전자영수증	100원/회	10,000원
리필스테이션	2,000원/회	10,000원
다회용기	1,000원/회	10,000원
무공해차 대여	100원/km(주행거리)	25,000원

※ 실천 다짐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됨

<표 2> 갑, 을, 병의 2022년 탄소중립 실천 내역

구분	실천 활동 내역
갑	◦ 실천 다짐서 작성 ◦ 전자영수증 100회 사용 ◦ 무공해차 5회 대여(총 368km 주행)
을	◦ 실천 다짐서 작성 ◦ 전자영수증 11회 사용 ◦ 리필스테이션 5회 사용 ◦ 다회용기 10회 사용 ◦ 무공해차 28회 대여(총 103km 주행)
병	◦ 실천 다짐서 작성 ◦ 전자영수증 88회 사용 ◦ 리필스테이션 3회 사용 ◦ 다회용기 5회 사용 ◦ 무공해차 17회 대여(총 475km 주행)

<보 기>

- ㄱ. 갑은 을보다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한다.
- ㄴ. 을과 병이 각각 수령하는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액의 차이는 13,500원 이상이다.
- ㄷ. 무공해차 대여 지원금 단가의 산정 기준을 ‘100원/km(주행거리)’에서 ‘대여 횟수당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갑, 을, 병 중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을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7. 다음 <표>는 ‘A’국의 2019~20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 현황 및 이상소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국의 2019~20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 현황 및 이상소견 결과
(단위: 명)

구분		전체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건강진단 수검자		2,213,193	2,301,148	2,212,769	2,301,002	424	146
요 관 찰 자	소계	885,453	905,170	885,177	905,149	()	()
	일반질병(C2)	331,827	362,690	331,594	362,669	()	()
	야간작업(CN)	410,027	394,880	410,027	394,880	()	()
	직업병(C1)	143,599	147,600	143,556	147,600	()	()
유 소 견 자	소계	260,918	259,319	260,905	259,317	()	()
	일반질병(D2)	56,451	55,741	56,438	55,739	()	()
	야간작업(DN)	189,998	189,124	189,998	189,124	()	()
	직업병(D1)	14,469	14,454	14,469	14,454	()	()

※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자는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또는 임시건강진단 수검자 중 어느 하나로만 구분됨
 ※ 요관찰자 = 일반질병 요관찰(C2) + 야간작업 요관찰(CN) + 직업병 요관찰(C1)
 ※ 유소견자 = 일반질병 유소견(D2) + 야간작업 유소견(DN) + 직업병 유소견(D1)
 ※ 이상소견자 = 요관찰자 + 유소견자
 ※ 2019년 대비 증감률(%) = $\frac{2020\text{년 값} - 2019\text{년 값}}{2019\text{년 값}} \times 100$

<보 기>

- ㄱ.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자 중 이상소견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이 2019년보다 작다.
- ㄴ. 2020년 야간작업 유소견자 수의 2019년 대비 증감률은 2020년 야간작업 요관찰자 수의 2019년 대비 증감률보다 크다.
- ㄷ. 2020년 임시건강진단 수검자 중 이상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의 수는 289명이며, 이들 중 요관찰자의 비중은 95% 이상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28. 다음 <표>는 ‘갑’국 제OO대 의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제OO대 의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처리 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법률안 처리내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소계	가결		대안 반영	소계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A위원회	533	533	91	24	2	65	442	0	428	14
B위원회	1,948	1,948	365	92	67	206	1,583	0	1,574	9
C위원회	1,687	1,687	485	147	62	276	1,202	1	1,197	4
D위원회	2,119	2,119	918	105	36	777	1,201	0	1,166	35
E위원회	943	943	193	56	37	100	750	0	748	2
F위원회	1,029	1,029	321	86	40	195	708	0	701	7
G위원회	323	323	111	31	12	68	212	0	208	4
H위원회	549	549	199	49	19	131	350	0	339	11
I위원회	102	102	101	37	25	39	1	0	0	1
J위원회	2,590	2,590	1,122	250	78	794	1,468	0	1,452	16
K위원회	412	412	204	44	30	130	208	0	205	3
계	12,235	12,235	4,110	921	408	2,781	8,125	1	8,018	106

※ ‘법률반영’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원안, 수정, 대안반영 중 어느 하나로만 분류되며, ‘법률미반영’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부결, 폐기, 철회 중 어느 하나로만 분류됨

<보 기>

- ㄱ. A~K위원회 가운데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건수 중 법률반영 건수의 비율이 가장 큰 위원회는 I위원회이고, 가장 작은 위원회는 A위원회이다.
- ㄴ. A~K위원회 가운데 위원회별 법률반영 건수 대비 법률미반영 건수의 비율이 가장 큰 위원회는 A위원회이고, 두 번째로 큰 위원회는 B위원회이다.
- ㄷ. A~K위원회 가운데 법률안을 부결한 사례가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건수 중 법률미반영 건수의 비율이 가장 크다.
- ㄹ. A~K위원회 가운데 위원회별 법률반영 건수 중 대안반영 건수의 비율이 가장 큰 위원회는 위원회별 법률반영 건수 중 원안가결 건수의 비율이 가장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9. 다음 <표>는 A~L시의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L시의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

행정구역	출생아수	조출생률	사망자수	조사망률
A	()	4.3	23,531	7.0
B	10,661	4.5	()	6.1
C	14,947	5.1	16,493	5.6
D	7,956	5.5	7,981	5.5
E	7,414	()	7,889	5.4
F	6,127	5.5	5,493	4.9
G	7,357	4.8	12,749	8.3
H	10,984	5.2	()	7.7
I	7,475	()	15,049	8.4
J	8,430	4.6	17,568	9.6
K	12,045	4.6	22,928	8.8
L	()	4.7	23,392	7.1

※ 조출생률은 해당 행정구역의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고, 조사망률은 해당 행정구역의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함
※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보 기>

- ㄱ. K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는 G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보다 크다.
ㄴ. I의 조출생률은 E의 조출생률보다 크다.
ㄷ. A의 출생아수는 L의 출생아수보다 많다.
ㄹ. H의 사망자수는 B의 사망자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30. 다음 <표>는 ‘갑’국의 어종별 TAC 할당량 및 소진량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국 어종별 TAC 할당량 및 소진량
(단위: 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할당량	소진량	할당량	소진량	할당량	소진량
오징어	97,362	39,425	89,078	32,993	88,834	43,422
고등어	132,452	85,540	129,527	73,297	116,592	108,008
전갱이	30,727	15,678	23,424	18,792	31,779	23,797
도루묵	2,821	2,102	2,196	2,117	3,207	1,844
홍게	26,630	13,491	25,516	14,699	23,273	21,268
꽃게	5,798	2,062	5,033	3,404	5,102	4,695
대게	1,003	877	1,036	796	948	590
키조개	7,437	5,071	8,582	4,124	6,797	4,537
개조개	1,551	1,169	1,507	831	1,056	749
참홍어	377	371	447	447	789	707
제주소라	1,788	1,254	1,879	1,524	1,721	1,459
바지락	1,561	687	1,638	574	1,491	362
합계	309,507	167,727	289,863	153,598	281,589	211,438

※ 제시되지 않은 어종은 고려하지 않음

<정 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이때, TAC 할당량 대비 소진량을 ‘소진율’이라 하는데, ‘갑’국의 소진율은 EU의 주요 어종의 평균 소진율(=96%)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① 2019년 소진율이 가장 높은 어종은 2020년 및 2021년 소진율도 가장 높다.
② 2020년 및 2021년 ‘갑’국 어종 전체의 소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③ 소진율이 EU 주요 어종의 평균 소진율보다 높은 어종은 2019~2021년 동안 매년 1종 이상 존재한다.
④ 개조개와 바지락의 할당량은 2019~2021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⑤ 2019년 및 2020년 ‘갑’국 어종 중 소진율이 30% 미만인 어종은 없다.

31. 다음 <표 1> 및 <표 2>는 국가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보수정비 건수	투입금액		
		국비	지방비	계
2017년	151	13,045	5,690	18,735
2018년	164	11,642	5,113	16,755
2019년	148	15,017	6,518	21,535
2020년	175	19,224	8,386	27,610
2021년	172	16,997	7,478	24,475
평균	162	15,185	6,637	21,822

<표 2>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보수정비 건수	투입금액		
		국비	지방비	계
2017년	97	7,400	7,680	15,080
2018년	134	9,525	9,525	19,050
2019년	134	14,900	14,900	29,800
2020년	147	10,295	10,295	20,590
2021년	188	12,875	12,875	25,750
평균	140	10,999	11,055	22,054

- ①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투입금액이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투입금액보다 많았던 해는 2017년뿐이다.
- ②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건당 투입금액보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건당 투입금액이 매년 많다.
- ③ 2018~2021년 중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투입금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건수도 가장 많다.
- ④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건당 국비 투입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해는 2019년과 2020년뿐이다.
- 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건당 지방비 투입금액이 가장 적은 해는 2021년이다.

32. 다음 <표>는 ‘갑’국의 가구 유형별 최저생활보장 수준과 월평균 소비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최저생활보장 수준 대비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갑’국의 가구 유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국의 가구 유형별 최저생활보장 수준과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균등화지수	0.37	0.63	0.815	1
기준 중위소득	()	()	()	488
최저생활보장 수준	()	()	()	()
월평균 소비지출	145	220	315	390

<정 보>

○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가 동일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가구의 균등화지수를 1로 하여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의 동등한 소득 수준을 기준가구 수준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가구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균등화지수

○ 최저생활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 × 0.3

- ① 1인 가구 - 4인 가구 - 3인 가구 - 2인 가구
- ② 1인 가구 - 4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③ 1인 가구 - 3인 가구 - 2인 가구 - 4인 가구
- ④ 4인 가구 - 1인 가구 - 3인 가구 - 2인 가구
- ⑤ 4인 가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33. 다음 <표>는 A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2022년 말까지의 법률 제·개정 여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X)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한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법률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내용
2023001	(가)의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
2023002	(나)의원	보통교부금(X)의 배분방식을 ‘(A)의 87% + (B) - (C)’로 변경하고, 특별교부금의 배분방식을 (A)의 13%로 변경
2023003	(다)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부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7.5%로 조정

<정 보>

- A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은 아래와 같으며 재원과 배분의 총합은 항상 일치함.

재원	내국세 부문	해당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20% = (A)	
	교육세 부문	해당 회계연도 교육세 세입액 = (B)	
배분	교부금	보통교부금(X)	(A) × 97% + (B) - (C)
		특별교부금	(A)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C)

※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 A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총액은 370조원, 교육세 세입액은 5조원으로 편성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배분액은 연간 2조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3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 결정될 예정임.

- ① 6조 9,725억원
- ② 8조 9,725억원
- ③ 13조 9,725억원
- ④ 15조 4,475억원
- ⑤ 17조 4,475억원

34. 다음 <표 1> 및 <표 2>는 ‘갑’국의 신혼부부 혼인 연차별 거처 종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5년 신혼부부 혼인 연차별 거처 종류 현황

(단위: 쌍)

구분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년차	290,767	72,842	199,541	159,621	5,905	34,015	18,384
2년차	294,963	66,614	213,047	174,063	6,281	32,703	15,302
3년차	299,544	61,636	224,674	186,498	6,542	31,634	13,234
4년차	297,119	59,261	225,889	190,204	6,345	29,340	11,969
5년차	289,259	55,872	222,299	189,264	6,125	26,910	11,088
합계	1,471,652	316,225	1,085,450	899,650	31,198	154,602	69,977

※ ‘갑’국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부부를 의미하며, 신혼부부의 거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타 중 어느 하나로만 분류됨

<표 2> 2021년 신혼부부 혼인 연차별 거처 종류 현황

(단위: 쌍)

구분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년차	191,904	32,664	142,614	117,749	3,746	21,119	16,626
2년차	209,468	30,699	165,164	139,122	4,045	21,997	13,605
3년차	225,866	33,304	180,441	154,013	4,330	22,098	12,121
4년차	236,828	33,272	192,792	166,571	4,598	21,623	10,764
5년차	237,394	32,770	195,013	169,838	4,629	20,546	9,611
합계	1,101,460	162,709	876,024	747,293	21,348	107,383	62,727

※ ‘갑’국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부부를 의미하며, 신혼부부의 거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타 중 어느 하나로만 분류됨

<보 기>

- ㄱ. 2015년 각 혼인 연차별 신혼부부 중 공동주택이 거처인 신혼부부의 비중은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 ㄴ. 2021년 각 혼인 연차별 신혼부부 중 아파트가 거처인 신혼부부 쌍의 수는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 ㄷ. 신혼부부 중 공동주택이 거처인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2021년에 5%p 이상 증가하였고, 공동주택이 거처인 신혼부부 중 아파트가 거처인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대비 2021년에 5%p 이상 증가하였다.
- ㄹ. 2021년 2년차 및 3년차 신혼부부 중 단독주택이 거처인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3%보다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5.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국가 R&D 예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국가 주요/일반 R&D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R&D 예산	190,943	194,615	196,681	205,329	252,195	274,006
국가 주요 R&D	128,337	130,049	146,977	164,728	205,539	224,894
국가 일반 R&D	62,606	64,566	49,704	40,601	46,656	49,112

<표 2> 회계별 국가 R&D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R&D 예산	190,943	194,615	196,681	205,329	252,195	274,006
일반회계	144,170	149,032	153,112	163,686	178,556	198,864
특별회계	28,735	27,104	25,845	24,307	55,870	55,056
기금	18,038	18,479	17,724	17,336	17,769	20,086

<표 3> 부처별 국가 R&D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R&D 예산	190,943	194,615	196,681	205,329	252,195	274,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571	67,484	67,357	69,956	79,882	87,357
산업통상자원부	34,073	32,057	31,623	32,068	41,718	49,518
방위사업청	25,571	27,838	29,017	32,285	39,191	43,314
교육부	19,397	17,481	17,488	19,286	21,933	23,444
중소벤처기업부	9,563	11,172	10,917	10,744	14,885	17,229
기타	36,768	38,583	40,279	40,990	54,586	53,144

※ 기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여러 부처가 포함됨

- ① 2018년 이후 국가 R&D 예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다.
- ②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 R&D 예산이면서 일반회계인 국가 주요 R&D 예산은 5조 6천억원 이상이다.
- ③ 2021년 대비 2022년 국가 R&D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큰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 ④ 2023년 국가 R&D 예산이 29.8조원이고 국가 R&D 예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과 같다면, 2023년 기금인 국가 R&D 예산은 2.2조원 이상이다.
- ⑤ 2019년 이후 국가 R&D 예산에서 국가 일반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다.

36. 다음 <표>는 공공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갑’공장의 공정별 원료 투입 누적량 및 그에 따른 제품 T의 최대 생산량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갑’공장 고유번호의 값을 구한 것은?

<표> 공정별 원료 투입 누적량 및 그에 따른 제품 T의 최대 생산량

시점	원료 투입 누적량		공정별 제품 T의 최대 생산량	
	A	B	X	Y
1	65	64	30	20
2	119	86	40	30
3	121	92	60	40
4	161	98	70	40
5	199	()	()	50

<정 보>

- X공정은 제품 T 10개를 생산할 때마다 A원료 40단위 또는 B원료 30단위가 필요하다.
- Y공정은 제품 T 10개를 생산할 때마다 A원료 30단위와 B원료 20단위가 필요하다.
- 제품 T는 10개 단위로만 생산 가능하다.
- 시점별 원료 투입 누적량은 해당 시점까지 X공정 또는 Y공정에 투입된 원료의 양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1시점에서 원료 A, B를 X공정에 모두 투입하면 제품 T를 최대 30개까지, Y공정에 모두 투입하면 최대 2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 $i_k^j = i$ 공정의 k 시점에서의 j 원료 기여도 = (㉠) ÷ (㉡)
(단, $i=X$ 또는 Y , $j=A$ 또는 B)
- (㉠) = (i 공정의 k 시점에서의 제품 T 최대 생산량) - (i 공정의 $k-1$ 시점에서의 제품 T 최대 생산량)
- (㉡) = (i 공정의 k 시점에서의 원료 j 투입 누적량) - (i 공정의 $k-1$ 시점에서의 원료 j 투입 누적량)
- ‘갑’공장 고유번호 = (i_5^B 의 최댓값) × 30

- ① 75
- ② 100
- ③ 150
- ④ 200
- ⑤ 225

37. 사무관 갑은 2015~2019년 콘텐츠산업에 관한 <표 1> 및 <표 2>를 송부받았는데, 해당 자료의 수치 일부분이 손상되어 ■ 무늬로 표시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는 0~9 중 하나이며, 서로 다를 수 있다)

<표 1> X대륙 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및 수출액 현황
(단위: 조원[매출액], 천달러[수출액])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판	매출액	20.8	18.8	20.9	21.3	21.■
	수출액	187,388.2	220,951.9	24■,991.3	214,732.1	345,960.4
만화	매출액	0.■	1.1	1.2	1.2	1.5
	수출액	32,482.3	35,262.2	40,501.8	46,010.7	62,715.4
영화	매출액	■.3	5.5	5.9	6.4	3.0
	수출액	43,894.2	40,726.4	41,607.0	37,877.4	54,157.8
영상	매출액	0.■	0.7	0.6	0.■	0.7
	수출액	135,622.6	144,870.7	174,517.0	194,148.3	134,532.5
음악	매출액	■.3	5.8	6.1	6.8	6.1
	수출액	442,566.1	513,080.8	564,936.6	756,198.5	679,633.6

※ 제시된 수치는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2015년 주요 국가의 X대륙 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원, %, 위)

구분		출판	만화	영화	영상	음악
A국		7,449	254	1,497	149	1,950
B국		2,833	235	520	57	306
C국		3,250	311	96	65	405
D국		2,077	■8	275	41	204
E국		890	36	242	2	189
F국		1,029	55	111	2	128
G국	매출액	653	37	101	1	80
	점유율	3.1	3.9	1.9	0.1	1.5
	매출액 순위	7	■	9	■	10

※ 제시된 수치 중 점유율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나머지 수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보 기>
- ㄱ. <표 1>에 제시된 콘텐츠산업 분야 중, 2019년 매출액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만화이다.

ㄴ. 2017년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출판 분야 증가율은 영화 분야 증가율이나 음악 분야 증가율보다는 크고, 영상 분야 증가율보다는 작다.

ㄷ. 2015년 G국의 X대륙 내 만화 분야 매출액 순위는 5위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8. 다음 <표>는 ‘갑’국 화폐 k에 대한 A국 화폐 aaa의 영업일별 환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영업일 이외의 영업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A국 화폐 aaa의 영업일별 환율
(단위: k/aaa)

영업일	송금		현찰		기준환율
	보내실 때	받으실 때	사실 때	파실 때	
2022.12.01.	1,387	1,360	1,400	1,346	1,375
2022.12.02.	1,388	1,361	1,401	1,347	1,369
2022.12.03.	1,386	1,358	1,399	1,345	1,370
2022.12.04.	1,400	1,372	1,413	1,359	1,357
2022.12.05.	1,400	1,373	1,414	1,359	1,370
2022.12.06.	1,404	1,376	1,417	1,362	1,387
2022.12.07.	1,395	1,367	1,408	1,354	1,394
2022.12.08.	1,394	1,367	1,408	1,353	1,376
2022.12.09.	1,410	1,382	1,423	1,368	1,380
2022.12.10.	1,395	1,368	1,409	1,354	1,387
2022.12.11.	1,409	1,381	1,423	1,368	1,384
2022.12.12.	1,408	1,381	1,422	1,367	1,383
2022.12.13.	1,399	1,371	1,413	1,358	1,388
2022.12.14.	1,384	1,356	1,397	1,343	1,381
2022.12.15.	1,384	1,356	1,397	1,343	1,379
2022.12.16.	1,375	1,347	1,388	1,334	1,365
2022.12.17.	1,378	1,351	1,392	1,338	1,353
2022.12.18.	1,370	1,342	1,383	1,329	1,362
2022.12.19.	1,369	1,342	1,382	1,329	1,358
2022.12.20.	1,363	1,336	1,376	1,323	1,349
2022.12.21.	1,359	1,332	1,372	1,319	1,347

- ①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중 영업일별 ‘기준환율 - 현찰 파실 때 환율’은 항상 5k/aaa 이상이다.
- ②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중 영업일별 ‘송금 보내실 때 환율 -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은 같은 기간 ‘현찰 사실 때 환율 - 현찰 파실 때 환율’보다 항상 작다.
- ③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중 기준환율이 연속하여 상승한 최장기간은 연속하여 하락한 최장기간보다 짧다.
- ④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 사이의 ‘현찰 사실 때’의 최저 환율과 202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 사이의 ‘현찰 파실 때’의 최고 환율의 차이는 55k/aaa 이상이다.
- ⑤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중 영업일별 ‘현찰 사실 때 환율 -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은 항상 15k/aaa 이하이다.

※ 다음 <표 1> 및 <표 2>와 <그림 1> 및 <그림 2>는 가수 A~C의 연간 음원 스트리밍 횟수와 연간 음반 판매량 및 팬 투표 득표율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39.~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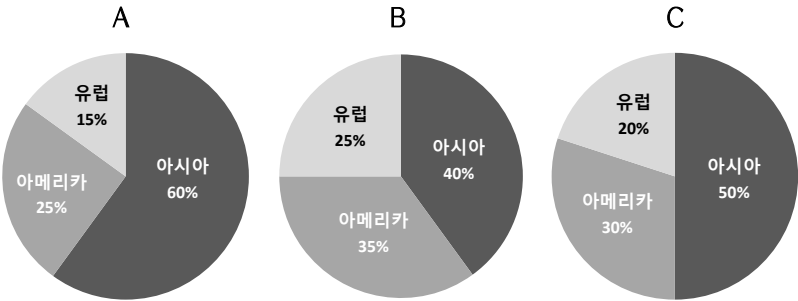
<표 1> 가수 A~C의 연간 음원 스트리밍 횟수의 플랫폼별 비중
(단위: %)

플랫폼	가			나			다			합계		
가수	A	B	C	A	B	C	A	B	C	A	B	C
비중	42.0	50.0	30.0	31.0	33.3	40.0	27.0	16.7	3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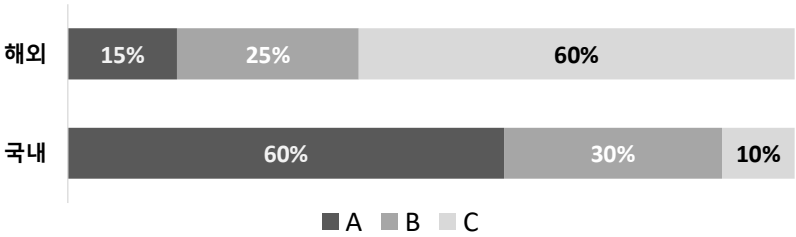
<표 2> 가수 A~C의 연간 음원 및 음반 실적
(단위: 만회, 만장)

구분	A	B	C
연간 음원 스트리밍 횟수	500	600	400
연간 음반 판매량	350	500	800

<그림 1> 가수 A~C의 연간 음반 판매량의 지역별 비중



<그림 2> 가수 A~C의 팬 투표 득표율



39.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그림 1>의 3개 지역 중 A~C의 연간 음반 판매량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의 음반 판매량과 가장 작은 지역의 음반 판매량의 차이는 500만장 이상이다.
 - ㄴ. 3개 플랫폼별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살펴보면, A는 1개 플랫폼, B는 2개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횟수가 A~C 중 가장 많다.
 - ㄷ. 플랫폼 ‘나’의 전체 연간 스트리밍 횟수 중 A~C의 연간 스트리밍 횟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면, 플랫폼 ‘나’의 전체 연간 스트리밍 횟수는 2,000만회 이상이다.
 - ㄹ. 만약 플랫폼 ‘다’에서 C의 연간 스트리밍 횟수가 30만회 증가한다면, C의 연간 스트리밍 횟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은 ‘다’ 플랫폼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0. 자료와 다음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요대상 수상자는?

- <정 보>
- 가요대상 후보는 A, B, C 3인이다.
- 가요대상 최종 점수는 후보별 음원, 음반, 팬 투표 점수의 단순합산으로 결정되며,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가 수상자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가 공동 1위를 기록하는 경우, 공동 수상자가 된다.
- 음원 점수: 플랫폼 ‘가’, ‘나’의 연간 음원 스트리밍 횟수의 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 플랫폼 ‘가’, ‘나’의 연간 음원 스트리밍 횟수 합계 | 400만 이상 | 300만 이상
400만 미만 | 300만 미만 |
| 점수 | 40점 | 20점 | 10점 |
- 음반 점수: 3개 지역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점수를 모두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 | | | | |
|---------------|---------|--------------------|---------|
| 지역별 연간 음반 판매량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200만 미만 | 100만 미만 |
| 점수(각 지역마다) | 8점 | 5점 | 2점 |
- 팬 투표 점수: (국내 득표율 × 0.6 + 해외 득표율 × 0.4)로 점수를 집계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에게 20점, 두 번째로 높은 후보에게 10점, 가장 낮은 후보에게 0점을 부여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